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209-3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기획: 이주민과 함께 누구나 존엄하게,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2022. 12. 07.

담당자 국가인권위원회 박윤미 주무관
e-mail | pym1102@korea.kr

한국리서치 유승아 책임연구원
전화 | 02-3014-1051
e-mail | sayoo@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가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가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차장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정한울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1 들어가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2022년 10월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약 220만 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이동이 자유롭지 않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지만, 국내 체류외국인의 수가 2007년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2016년 200만 명을 넘어설 때까지 매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던 것에 비춰 보면, 향후 증가가 예상된다. 2021년 12월 통계청과 법무부가 발표한 「2021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자녀 등 2인 이상 가구가 73.7%(귀화허가자인 경우는 92.7%)로, 이주민의 '가족 체류' 비중이 높고 정주형 이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들 중 경제활동 연령인 20~59세가 80.1%으로 국내 노동시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경제활동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이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자녀세대의 규모가 확대되었고, 최근 가족 이주 등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이렇듯 이주민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이주민 인권은 어떻게? 국가인권위원회가 만18세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올해 7월~9월 실시한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 조사를 중심으로 이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수용도 및 인권 인식을 살펴보았다.

2 이주민 수용도

국민의 66.2%는 이주민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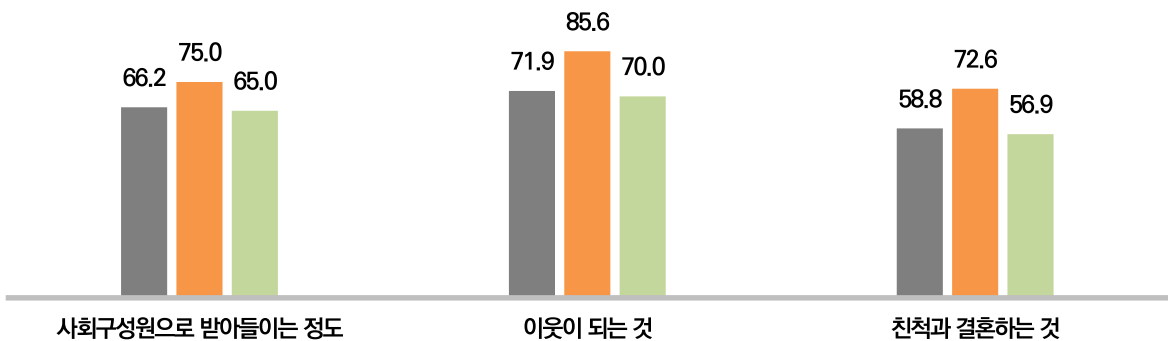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6.2%가 이주민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지인(가족, 이웃, 친구) 중에 결혼이주민이 있다는 비율은 9.3%, 이주노동자가 있다는 비율은 6.7%로 나타났다.

이주민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71.9%, 이주민이 나의 친척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좋다는 응답은 58.8%로 나타났다. 이주민이 나의 친척과 결혼하는 것에 긍정적인 응답이 과반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나의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한 긍정 응답보다는 13.1%포인트 낮아, 이주민과 이웃보다 가까운 관계인 가족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편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단위 : %)

이주민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것 좋다' 71.9%
이주민이 '친척과 결혼하는 것 좋다' 58.8%

■ 전체 ■ 이주민 지인 있음(n=1,983) ■ 이주민 지인 없음(n=14,165)



질문: 귀하는 이주민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이주민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이주민이 나의 친척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고: 그렇다(매우 그렇다+조금 그렇다)/좋다(매우 좋다+대체로 좋다)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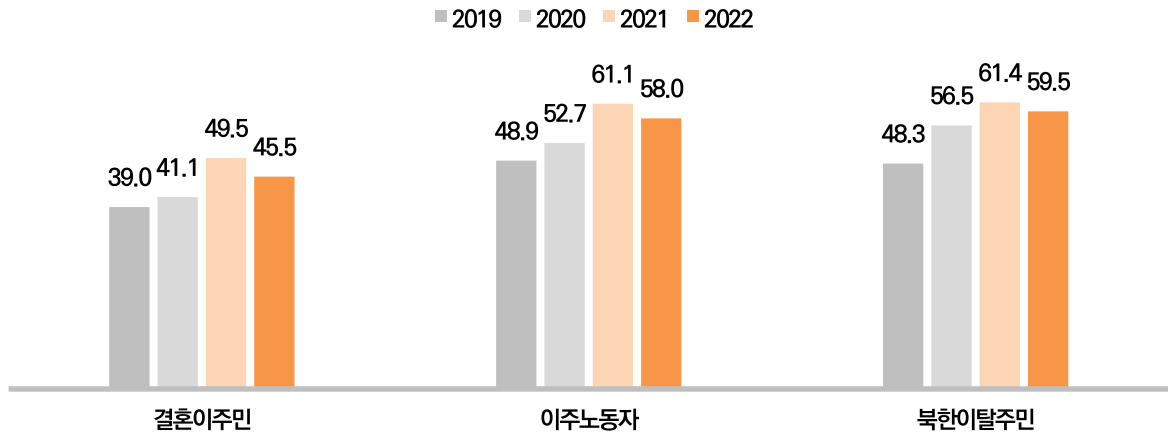
응답자 수 : 16,148명

조사기간 : 2022.7.1. ~ 9.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이주민이 정치적 대표자가 되는 것에 대한 인식도 물었다. 이주노동자가 정치적 대표자가 되는 것에 불편하다는 응답은 58.0%로 북한이탈주민(59.5%) 다음으로 높았고, 결혼이주민이 정치적 대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45.5%가 불편하다고 답했다. 결혼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전년대비 4.0%포인트,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3.1%포인트 감소하여 이주민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이주노동자가 정치적 대표자 되는 것 불편하다 58.0%

질문: 다음의 사람이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고: 불편하다(매우 불편하다+다소 불편하다) 응답

응답자 수 : 16,148명

조사기간 : 2022.7.1. ~ 9.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이주민 지인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주민에 대한 수용도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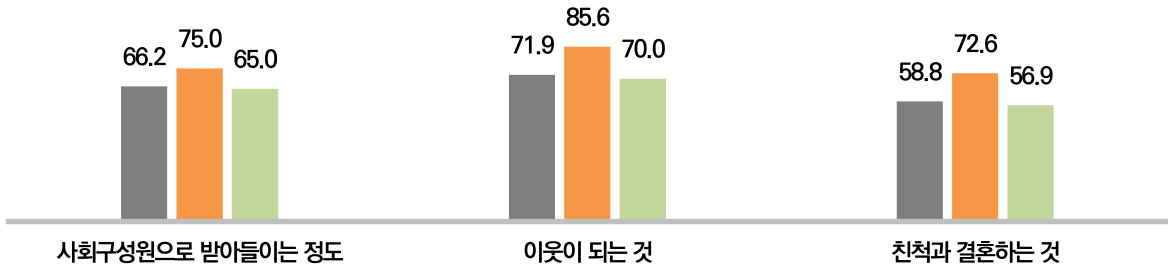
가족, 이웃, 친구 중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가 있는 국민은 이주민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여기고 이주민의 정치적 진출에 대해 더 관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긍정 응답은 이주민 지인이 있는 응답자(75.0%)가 이주민 지인이 없는 응답자(65.0%)보다 10.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주민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이주민 지인이 있는 응답자가 이주민 지인이 없는 응답자보다 15.6%포인트, 이주민이 나의 친척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긍정 응답 역시 이주민 지인이 있는 응답자가 15.7%포인트 더 높았다.

이주민 지인이 있을수록 결혼이주민과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이 정치적 대표자가 되는 것에 대한 반감도 낮았다. 이주민 지인이 있는 응답자는 없는 응답자 대비 결혼 이주민(36.1%, 이주민 지인 없음 46.8%), 이주노동자(51.2%, 이주민 지인 없음 58.9%), 북한이탈주민(54.9%, 이주민 지인 없음 60.2%)이 정치적 대표자가 되는 것에 반감이 최소 5.3%포인트~최대 10.7%포인트까지 낮았다.

이주민 지인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주민에 대한 수용도 높아

(단위 : %)

■ 전체 ■ 이주민 지인 있음(n=1,983) ■ 이주민 지인 없음(n=14,165)



질문: 귀하는 이주민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이주민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이주민이 나의 친척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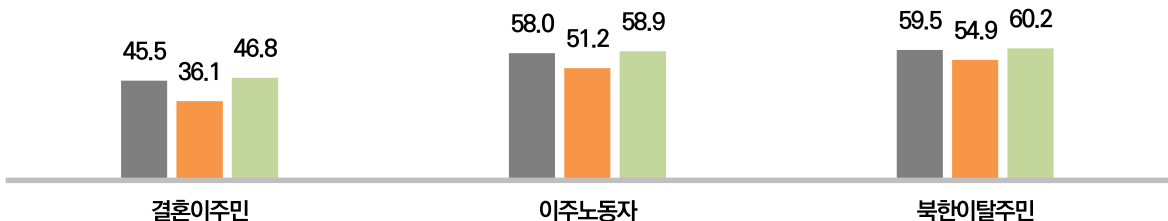
비고: 그렇다(매우 그렇다+조금 그렇다)/좋다(매우 좋다+대체로 좋다) 응답

응답자 수 : 16,148명

조사기간 : 2022.7.1. ~ 9.16.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이주민 지인 있는 경우 더 낮아

■ 전체 ■ 이주민 지인 있음(n=1,983) ■ 이주민 지인 없음(n=14,165)



질문: 다음의 사람이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고: 불편하다(매우 불편하다+다소 불편하다) 응답

응답자 수 : 16,148명

조사기간 : 2022.7.1. ~ 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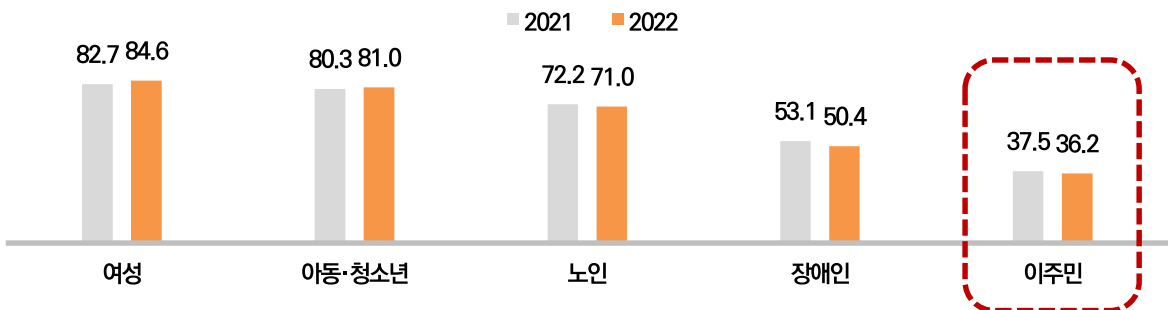
3 이주민 인권 및 권리에 대한 인식

이주민 인권이 존중된다는 응답은 36.2%에 그쳐

우리 국민 중 이주민 인권이 존중된다는 응답은 36.2%로 다른 사회적 약자/소수자(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을 조사한 결과, 결혼이주민/이주노동자라는 응답(20.3%)은 경제적 빈곤층(38.2%), 장애인(33.7%)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단위 : %)

이주민의 인권 존중된다 36.2% 여성, 아동·청소년 등보다 낮아



질문: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다음 집단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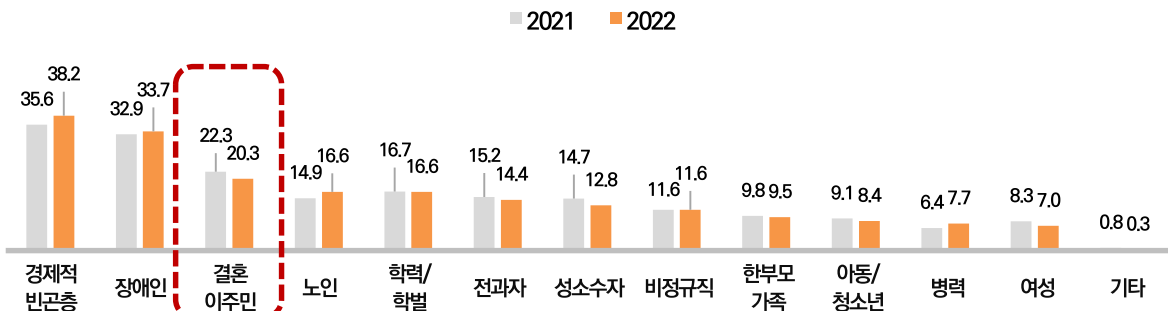
비고: 존중된다(매우 존중된다+존중되는 편이다) 응답

응답자 수 : 16,148명

조사기간 : 2022.7.1. ~ 9.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결혼 이주민 인권침해/차별 많이 받아 20.3%, 경제적 빈곤층과 장애인 다음으로 높아



질문: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누가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고: 1+2순위 응답

응답자 수 : 16,148명

조사기간 : 2022.7.1. ~ 9.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경험자를 대상으로 혐오표현 대상을 조사한 결과, 이주민을 꼽은 응답은 2019년 조사 이후 15%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주민 지인이 있는 응답자의 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 노출은 21.6%로 이주민 지인이 없는 사람(14.4%)보다 7.2%포인트 높았다. 이는 이주민 지인의 존재로 인해 혐오표현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졌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주민 지인이 있으면 혐오표현을 접했을 때 비판적으로 대응하고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혐오표현 대상, '이주민' 15.4% 2019년 이후 15% 유지

(단위 : %)



2022년	혐오표현 대상 이주민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등)
혐오표현 경험있음(n=9,127)	15.4
이주민 지인 있음(n=1,285)	21.6
이주민 지인 없음(n=7,842)	14.4

질문: 혐오 표현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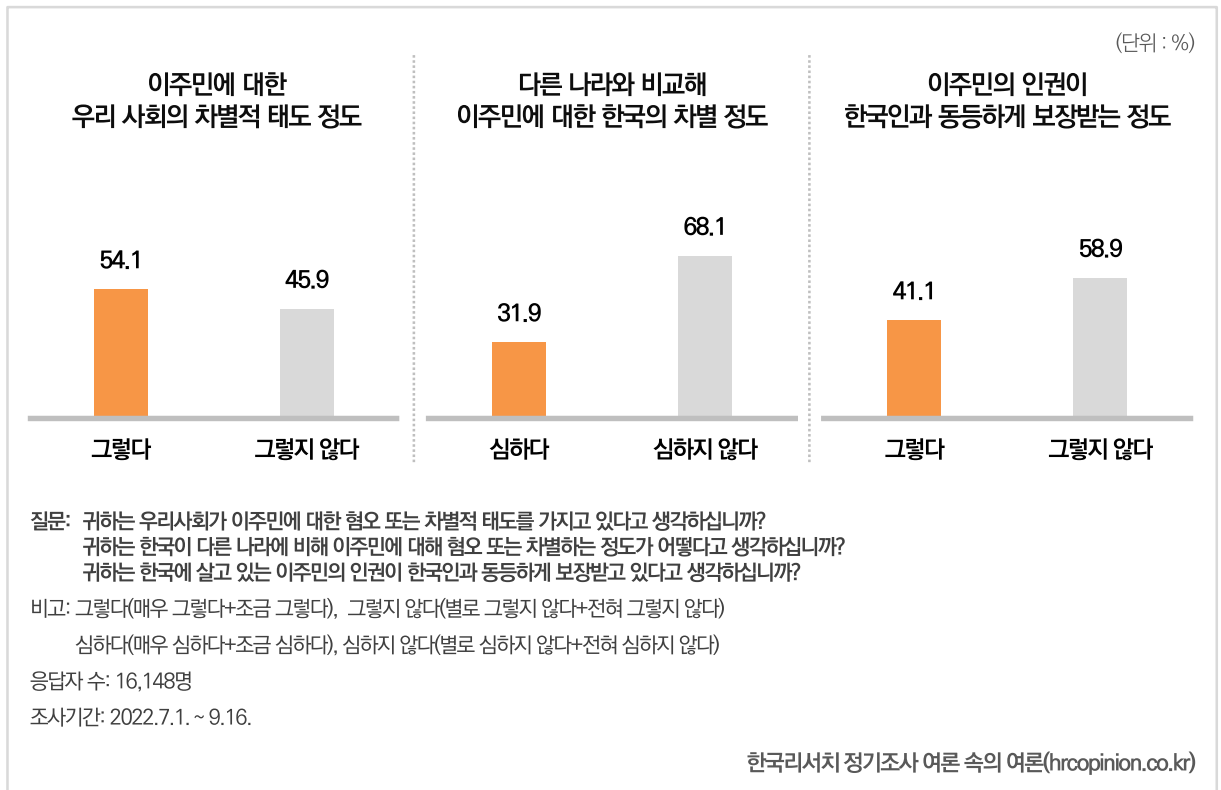
응답자 수 : 혐오표현 경험 있음(n=9,127명)

조사기간 : 2022.7.1. ~ 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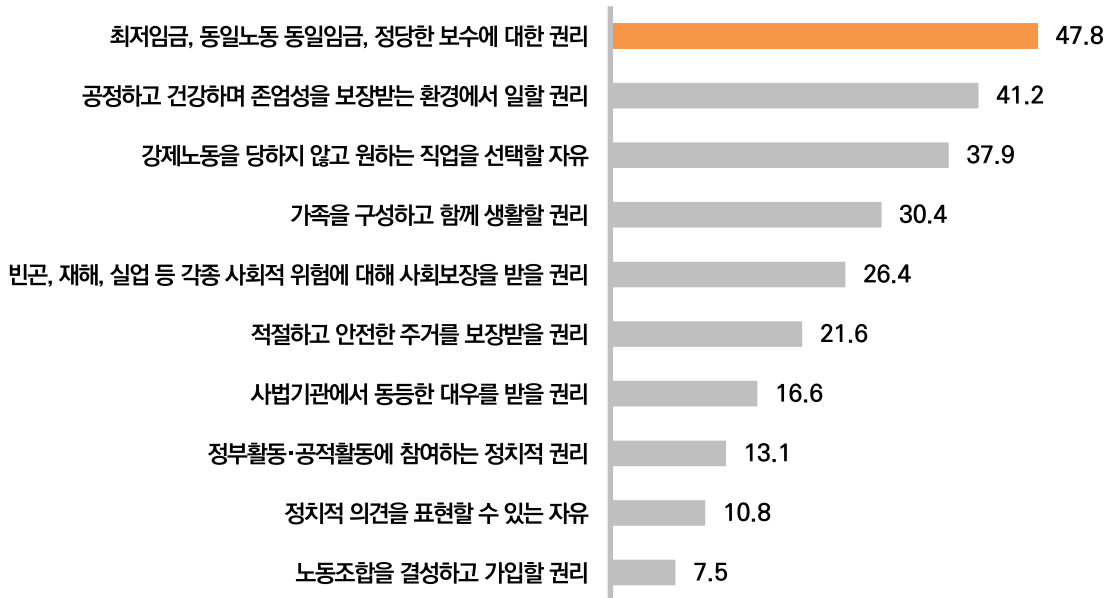
우리 정부가 이주민에게 보장해야 할 권리는 노동권

국민 2명 중 1명(54.1%)은 우리 사회가 이주민에 대해 혐오 또는 차별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차별 정도가 심하다는 응답은 31.9%로 상대적으로 차별의 심각도에 대한 인식은 낮게 나타났다.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이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58.9%)는 응답은 절반 넘게 차지했다. 우리 정부가 이주민에게 필수적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를 묻은 결과, 최저임금, 동일노동·동일임금, 정당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47.8%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공정하고 건강하며 존엄성을 보장받는 환경에서 일할 권리(41.2%), 강제노동을 당하지 않고, 직업을 선택할 자유(37.9%) 등 주로 노동권 보장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단위 : %)

이주민에게 최저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당한 보수에 대한 권리 보장해줘야 47.8%

질문: 귀하는 우리 정부가 다음의 권리 중 이주민에게도 필수적으로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권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3가지 권리를 선택해 주십시오.

비고: 중복응답

응답자 수 : 16,148명

조사기간 : 2022.7.1. ~ 9.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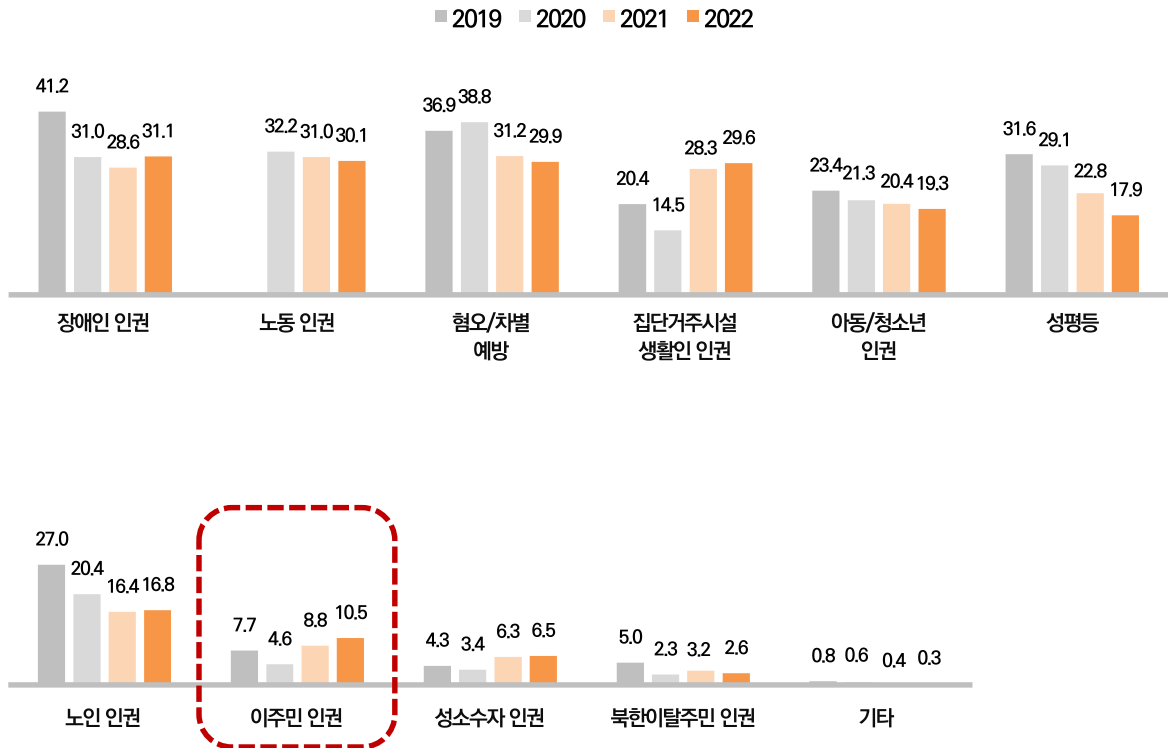
이주민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 필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과 성인 총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이 71.39점인 것에 비해, 성인은 52.27점에 그쳤다. 2018년 결과와 비교하면, 청소년은 다문화수용성이 상승하고 성인은 하락하여 그 격차가 더 커졌다. 청소년과 성인의 수용성 차이가 큰 것에 대해 다문화교육·활동에 참여한 적이 많은 청소년이 높게 나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권의식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로 이주민 인권을 꼽은 응답은 2020년 이후 증가 추세이다(2020년 4.6% → 2022년 10.5%). 이주민에 대한 교육과 상호교류가 활발해질수록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주민 인권이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단위 : %)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 '이주민 인권' 10.5%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



질문: 귀하는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1+2순위 응답

응답자 수 : 16,148명

조사기간 : 2022.7.1. ~ 9.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혐오와 인종차별 행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주민 인권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식개선과 규제장치의 마련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에서 '이주민 인권이 존중된다'는 응답이 다른 사회적 약자에 비해서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것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주민을 포함하여 '누구나 존엄하게,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필요하다.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2022년 현재 국내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표집틀	• 2020년 등록센서스(통계청) 전체 조사구 중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조사구를 제외한 아파트 조사구와 일반조사구
표집방법	• 1차 추출단위 (PSU): 조사구 (확률비례계통추출 적용) • 2차 추출단위 (SSU): 조사구 내 가구 (계통추출법 적용) • 최종조사단위 : 표본가구 내 적격가구원 전수 조사
표본크기	• 9,043가구(가구원 16,148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1.6\%p$ (설계효과 3.85 적용)
조사방법	• 일대일 면접조사 (TAPI : Tablet PC Aided Personal Interview) (단, 유치조사/웹-모바일 조사를 병행함)
가중치 부여방식	• 표본 가중값을 적용하고 복합표본설계에 적합한 모수추정법 적용
조사일시	• 2022년 7월 1일(금) ~ 9월 16일(금)
주관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 Research

